

## 열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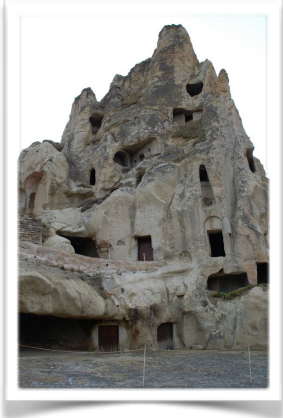
### 그 자취를 찾아서 (터키 성지순례)

#### 성지순례를 떠나다

BEE에서 터키 성지순례를 떠난다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인도하면서,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도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행적이 궁금하던 차라, 시간 내기에는 좀 불편한 시기인 5월이지만 무조건 신청했다. 주변에서 여행 위험지역이라고 만류하였지만, 귀한 기회라는 생각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수 주간에 걸친 준비모임을 통하여 터키의 역사 개요와 우리가 방문할 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터키라는 땅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했다.

#### 출발과 도착

5월 16일 월요일 저녁, 인천공항에 집결해서 11시 10분 밤 비행기로 터키로 떠난 다음날 화요일 새벽,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카이세리 공항에 도착했다. 이동할 버스에 오르니 외교부에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알림이 연속으로 울린다. 특별한 지역에 오긴 왔는가보다. 잘 생긴 터키 남자와 남녀 학생들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 어른들은 눈에 덜 띄었다. 우리가 만난 터키인들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호의적이었다.



### 첫째 날: 화요일

첫날 갑바도기아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아주 오래전 화산 폭발로 지형이 바뀌고 기괴한 암석들이 생겨난 곳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쟁에 쫓긴 피난민들의 아픔과 눈물이 얼룩진 땅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은신처인 괴뢰메 동굴교회가 여기저기 보였는데, 이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박해를 피해 깊은 땅 속에 만들어진 데린쿠유 지하도시의 좁고 낮은 통로를 통해 들어가 보았는데 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에는 인구 120만의 콘야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성경상의 이고니온이다.

### 둘째 날: 수요일

다음 날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지를 보았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낸 골로새의 유적지에도 들렀다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책망 받은 고대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순례를 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닌 그 지역의 신앙 공동체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아있는 교회 터는 후대에 그 지역에 세워진 기념교회였다. 인근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에서 로마시대 유적지와 빌립 순교 기념교회 유적을 보고, 백색 석회 층으로 둘러싸인 야외 온천장에서 눈 아래 경치를 보며 족욕을 즐기기도 했다.



### 셋째 날: 목요일

그 다음날은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폴리갑 기념교회) 등 여러 교회 터를 보았다. 각 교회가 어떤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 왜 어떤 교회는 질책 받았는지를 생각했다.



### 넷째 날: 금요일

밀레도에서는 고별설교를 듣고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바울이 3년간 머물며 세례를 베풀고 이적을 행하며 말씀을 전한 에베소를 방문해 많은 유적지를 보았다. 사도요한 기념교회, 아데미 신전터, 누가의 묘, 목욕탕, 셀수스 도서관(두란노 서원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 원형 극장... 바울, 요한, 베드로, 누가, 바나바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터키 땅에 기독교인은 0.3% 밖에 안 된다니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 다섯째 날: 토요일

토요일엔 이즈밀(서머나)에서 항공으로 이스탄불로 와서 오벨리스크가 서있는 로마시대의 대경기장 유적인 히포드롬 광장을 보았다. 기독교 정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6세기에 건립된 성소피아 성당(아야 소피아 박물관)은 6세기 동로마 제국 때 당대 최고의 성당으로 건설되었고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푸른 타일의 독특한 문양을 갖춘, 17세기에 건축된, 모스크 중 가장 아름답다는 블루모스크를 보면서 그들의 헛된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의 변환이, 또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이뤄진 정경분리가 이 나라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힘든 생활의 변화를 겪어야 했을까?

## 마지막 날: 주일

터키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호텔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보스포러스 크루즈를 하였다.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주요 수로인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를 타고 양측 기슭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는 일정인데, 물가에 세워진 돌마바흐체 궁전의 화려한 내부를 살펴보고 6세기경 세워진 고대 지하 물 저장고 중 가장 큰 예레바탄을 보고, 끝으로 만이 내려다보이는 피에르루티 언덕에 올라 발아래의 경치를 내려다보았다.

## 성지순례의 잔상들

여행하는 내내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맴돌았다. 바울과 요한, 빌립, 누가, 바나바, 디모데 등 선진들의 모습들. 우상이 넘쳐나던 시절, 요즘 같은 교통수단도 없고 길도 제대로 없는 위험한 곳을 목숨 걸고 핍박 받으며 걸어서, 때로는 나귀를 타고 가는 그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는 곳마다 오버랩되며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나의 사랑과 열정 없음과 나태함이 부끄러웠다.

또한 이 넓은 땅에 살고 있는 태평해 보이는 얼굴의 터키인들 중 0.3%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터키인들이 하루에 몇 번 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코란 소리와 함께 안타깝게 내 머리 속에 뒤엉켜 맴돌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13~15)

### 김관수는...

1951년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시 구로구 소재 김관수 산부인과 의원 원장.  
2010년 봄 온비아 14기로 BEE 멤버가 되었다.  
아내 남정현과 영인, 영유 두 딸이 있다.